

# 불교언어의 현대화와 재번역을 위한 제언\*

효신 스님(김연강)\*\*

1. 머리말
2. 번역에 대한 인식
3. 번역 과정의 검토
4. 번역을 위한 제언
5. 맺음말

## ■ 한글요약

이 논문은 불교언어의 현대역(現代譯)을 위한 현실 번역의 한계와 번역의 방향을 제안하여 불교언어의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번역에는 번역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와 연결된 사회적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된다. 그래서 통시적 관점에서 국어 번역사를 정립하여, 그 역사성을 토대로 불전의 번역 참여 및 번역 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현재와 향후 추구해야 할 번역 태도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최초의 불전 번역기관이었던 간경도감의 번역 절차와 제도적 번역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현실 번역에서 지향해야 할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 글말의 빈자리를 중국 한문이 차지하고

---

\* 이 논문은 2021년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있었던 만큼 불전의 번역 과정은 국어의 번역사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지탱해온 불교는 우리말글에서도 중심 영역을 담당해 왔으나 근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점점 그 세력을 잃어버렸다. 성서의 한글 번역화 작업으로 기독교의 용어로 자리이동된 불교언어들이 많아졌고, 불교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낮아 대중들의 언어권에서 그 힘이 약화되었다. 불교언어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사용자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번역 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번역의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전문용어, 불교언어, 재번역, 현대화, 번역의 시기 구분, 번역어

## 제1장 머리말

불교언어의 현대화란 이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전하기 위한 현대역(現代譯)을 말한다. 현대역의 과정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의 메시지 전달 방법인 번역의 방식과 그 문장 내의 개념어에 대한 전문용어로서의 번역 방식이다. 첫째, 문장의 번역 방식은 크게 직역과 의역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어휘(개념어)의 번역은 영(零, zero)번역, 음성번역, 의미번역, 혼용번역의 4가지 방식이 있다. 의미번역은 다시 ‘일대일 대응(축어역)번역, 축소번역, 확대번역’으로 그 갈래를 구분할 수 있다. ‘사리불’을 예로 들면, 영번역은 원어(Source Language, SL)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 “Śāriputra”로 표기한 것이다. 음성번역은 원어의 음성을 표기한 ‘사리불(사리푸트라, 舍利弗)’로 적은 것이며, 의미번역은 원어의 뜻을 옮긴 ‘추로의 아들(鶖鷲子·秋露子·鳩鷲子·鸚鷲子·鶖鷲子 등)’이고, 혼용번역

은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을 혼용하여 ‘사리자(舍利子·舍利子, 사리+아들)’로 옮긴 것이다.<sup>1)</sup> 국립국어연구원(2007)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번역의 3가지 유형(일대일 대응, 축소번역, 확대번역) 중에 불교 어휘(용어)는 대부분 일대일 대응(축어)번역에 해당한다. 불교 어휘는 불전 번역의 압축 결과물이다. 번역된 용어와 용어의 번역은 그 사상의 핵심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그 사상을 이루는 인자가 개념어이다. 불교언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관 또는 개인의 불전 번역이다. 그렇다면 불전의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전의 현대화란,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인을 위한 불교 대중서로서 현대역에 대한 의지와 실행은 일제강점기의 용성 스님으로 소급된다. 용성 스님은 옥중에서 접하게 된 한글 번역의 성서와 그 번역에 힘을 쏟는 바가 기독교 확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게 돼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sup>2)</sup> 조선 어학회의 국어학자 중에는 기독교인들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한글 교육과 성서번역이 서로 긴밀한 연결고리가 되어 상호발전의 동력이기도 하였다.<sup>3)</sup> 김윤경(1938)과 최현배(1940)<sup>4)</sup>는 한국인이라면 “한글 보급에 공헌한 기독교에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들

- 
- 1) “鶻子는 舍利弗의 어미 누니 붉고 조호야 하야로비의 누니 곧 흘씨 鶻子 | 라 호느니라.(추자는 사리불의 어머니의 눈이 밝고 깨끗해 하야로비의 눈과 같기에 추자라 한다)”(월인석보, 11:96)
  - 2) “그들은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며 우민(愚民) 남녀노소에게도 그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한글을 가르치며 이미 소개함 같이 학교를 처처에 설립하고 ... 중략... 교도들은 한글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할 만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글 발전에 대한 그 공헌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만한 것입니다.” 김윤경(1938/1985), 564.
  - 3) 현재 서울 한글학회 건물과 새문안교회, 주시경공원의 연결된 위치에서도 그 상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 4)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글 보급의 기독교의 위대한 공적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가지지 아니할 이 한 이도 없을 것이다.” 최현배(1940/1982), 87.

은 기독교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쉬운 한글 덕분에 기독교 전파가 용이했다는 관점과는 반대의 해석이다. 옥중에서 접한 기독교의 번역성서를 통한 전도 노력은 용성 스님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출옥 후 불전의 한글화 작업을 협의하자 주위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sup>5)</sup> 이런 상황은 그 당시의 언어관을 나타내주는 한 단면으로, 오랜 역사성을 담고 온 한문경전에 대한 익숙함과 관습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물론 “불교경전의 조선 번역이 없음은 조선불교의 큰 결함”으로 파악한 이영재(『조선 불교혁신론』의 저자)에게서도 한글화에 대한 강력한 인식은 보이나 현실에서 시행되지는 못했다.<sup>7)</sup> 근대의 이런 인식과 달리 대표할 만한 대중적 한글번역 불전<sup>8)</sup>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한문 불전의 현대역의 대조 텍스트는 오히려 중세 언해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다. 불전 번역의 근대 공백기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전의 번역 문제는 불전의 탄생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되는 부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각기 다른 언어를 지닌 독자들에게 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번역이다.<sup>9)</sup> 번역은 단순히 글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이기도 하다. 번역 가운데서도 고도의 사유를 요구하는 불전(佛典)의 경우는 번역자에게 더욱더 많은 조건을 요구

5) 백용성(1928), 47a.

6) 이러한 당시의 언어관은 김윤경의 『조선문자及어학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와 한글 교육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중에 한글과 한문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관을 언급하고 있다. “중래에는 유학에 중독되어 한문이 아니면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문을 모르면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마는 한글을 모름은 태연할 뿐 아니라 도리어 모르는 것을 자궁할 만큼 한글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 중략 … 마침내 기독교가 그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한글의 가치를 闡明하여 광채를 세계적으로 발휘하게 함에 큰 공적을 끼친 것입니다.” 김윤경(1938), 565.

7) 이영재(1922/1995), 119-120(김종인 2009, 109. 재인용).

8) 불경, 불서, 불전 등 여러 용어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불경과 논서 및 불교 관련 자료를 두루 아우르는 통칭으로 “불전”이라 부르기로 한다.

9) 야콥슨(1963)/권재일(1989), 84. 야콥슨은 “언어들은 전달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전달해야 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번역의 통시적 관점에서 우리말 불전번역의 시작점을 확인하여, 그 역사성을 토대로 현대 번역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한글 번역의 역사적 흐름에서 번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살펴보고 기존의 번역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현재와 향후 추구해야 할 번역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지역의 번역관에 대한 검토는 불전 번역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동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적 번역관 및 향후 번역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기로 한다.

## 제2장 번역에 대한 인식

### 2.1 동서의 번역관

번역은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를 수용 텍스트(Target Text, TT)로 옮기는 작업”이다.<sup>10)</sup> 여기에는 번역 대상의 두 텍스트와 번역자, 독자를 필요로 한다. 두 텍스트 사이의 표층적 심층적 상호소통을 도출하여 원전의 메시지를 수용 텍스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번역자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불전에 대한 번역의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번역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불전이 동양문화의 세계관이라면 성서는 서양문화의 세계관에 해당한다. 동서 두 지역의 정서적 물리적 거리만큼 이들의 번역 태도도

---

10) 우리의 번역관도 이와 같았음을 초창기 언해본 『석보상절』의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역이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기 나라의 글로 옮기는 것(“譯은 翻譯이니 너미 나랏글를 제 나랏글로 고태 쓸씨라. 『석보상절서』, 6a.)”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상이한가? 아니면 보편적 번역관을 추구했는가? 동서양의 번역 태도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번역의 태도에 다가가기로 한다.

### 1) 동아시아(중국)의 번역관

불전은 처음부터 특정 한 언어가 아닌 각자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합법성을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 성스러운 영역을 담보하기 위해 라틴어로만의 번역이 허락된 성서와 비교할 때 굉장한 차이를 지니는 점이다. 바라문 출신의 두 형제(야멜루와 떼꼴라) 비구가 부처님의 말씀을 범문시(梵文詩, chandas)으로 옮기도록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비구들이여, 나는 각자의 지역어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허락한다.”<sup>11)</sup>고 하였다. 이에 언어의 자율권을 보장받은 불전은 각 지역어로의 번역이 가능하였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해진 범어본 불전들은 중국 문자인 한문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번역과 관련하여 문장과 어휘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문장의 직역에 관한 방법론이다. 도안(道安, 314-385)의 『마하발라이바라밀경초서(摩訶鉢羅若波羅蜜經抄序)』에 제시된 “오실본(五失本), 삼불역(三不易)”의 원칙이다. 번역자의 판단에 따라 원전의 문장을 수정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5가지의 측면(五失本)<sup>12)</sup>과 번역자의 수준을 간과한 채 미숙한 해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3가지 측면(三不易)이다. 이 원칙은 번역자의 자격을 역설하는 견해로, 번역의 충실함은 번역자의 이해도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도안이 중시한 높은 수준을 구비한 대표적인 번역자로 구마라집(344-

11) “Anujānāmi, bhikkhave, sakāya niruttiyā Buddhavacanam pariyāpunitun”(Vin ii, 139.); 에피엔 라모프/호진스님(2006), 239.

12) 『출삼장기집』 권8.(T55, 52b-c). 후나야마 도루(船山徹)는 “도안의 ‘오실본’은 원문 충실주의자인 혜상(慧常)의 극단적인 직역 번역관에 대한 비판을 담아 제시된 것”으로 보았다. 船山徹/이향철(2018), 169.; 조윤경(2019), 10.

413?)을 들 수 있다. 범어와 한문에 능통했던 구마라집의 번역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부처님 말씀의 핵심(내용)을 전하는 데 충실한 의역을 하였다. 그의 번역은 유려한 문체와 함께 현재까지도 독자들에게 지지받고 있다. 구마라집은 번역이란 “마치 밥을 씹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아서, 다만 맛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남에게 구역질이 나게 한다”고 비유하며, 원래의 의미를 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번역된 어휘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방법인 ‘육합석(六合釋, *ṣaṭsamāsa*)이다. 범어 복합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해석하는 6가지 방법으로, “의주석, 지업석, 대수석, 인근석, 유재석, 상위석”이 해당한다.<sup>13)</sup>

마지막으로, 현장의 번역론인 “음성번역[音譯]과 정의번역(正義翻譯)”이다.<sup>14)</sup> 현장은 『사분율초간정기(四分律鈔簡正記)』에서 음성번역만 해야 할 경우와 중국에 존재하는지의 유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번역해

13) 6합석의 해석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주석(依主釋, *tatpuruṣa*): A와 B 사이에 격관계가 성립하는 이격한정복합어로, A와 B의 형식은 ‘AB<B’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예] 안식(眼識)”
- ② “지업석(持業釋, *karmadhāya*): A와 B 사이에 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동격한정복합어, ‘A+B’의 형식은 ‘A=B’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예] 장식(藏識)”
- ③ “대수석(帶數釋, *dvigu*): A와 B 사이에 이격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주석에 포함할 수 있으나, A의 자리에 수사가 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한정복합어를 말한다.”
- ④ “인근석(隣近釋, *avyayībhāa*): A와 B 사이에 동격이나 이격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⑤ “유재석(有財釋, *bahuvrī*): “A와 B 사이에 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의주석과 같으나, 의주석에서는 피한정자가 ‘A+B’의 구조 안에 있는 ‘B’임에 반해서 유재석의 피한정자는 그렇지 않다. ‘A+B’ 전체적으로 그 구조 밖에 있는 ‘X’를 한정하게 된다.”
- ⑥ “상위석(相違釋, *dvamva*): “A와 B 사이에 동격 관계도 이격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복합어.” 김호성(2001), 11-12.

14) 일반적으로 『번역명어집(翻譯名義集)』의 서문에 현장의 ‘오종불번(五種不翻)’ 내용이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이보다 앞선 당말오대 경소(景霄)의 사분율초간정기(四分律鈔簡正記)에는 더 자세한 현장의 번역이론이 기록되어 있었다(船山徹/이향철, 2018, 153.; 何錫蓉, 2004, 223-224.; 陶磊, 2016, 93.; 조윤경, 2019, 16.).

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전자는 ‘오종불번(五種不翻)’이고 후자는 ‘정번(正翻)과 의번(義翻)’이다. 먼저, 음성번역해야 하는 5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언 또는 다라니와 같이 비밀스러운 주문일 경우(秘密故如陀羅尼) 번역함이 오히려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가범(薄伽梵, bhagavat)”처럼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다의어일 경우(含多義故不翻)이다.<sup>15)</sup> 셋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처럼 이미 관용어로 굳어져 온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順古不翻). 넷째, ‘염부수(閻浮樹)’처럼 인도나 서역에는 존재하지만 중국에는 있지 않은 경우이다(無故不翻). 다섯째, 원어가 지닌 깊은 맛을 번역으로 제대로 낼 수 없는 경우로(生善故不翻), “prajñā(지혜), 보리살타(菩提薩埵)” 등이 해당한다.

다음, 정번(正翻)과 의번(義翻)에 관한 이론이다. 정번은 직역의 일종이고 의번은 의역의 일종이다. ‘정번’은 양국(인도와 중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명칭만 다를 경우에는 중국어로 번역하는 이론이다. “인도의 ‘분다리가(莽荼利迦, pundarika)’가 중국의 ‘백련화(白蓮華)’에 해당하므로” 중국어로 직역한 것이 정번에 해당하다.<sup>16)</sup> ‘의번’은 중국에는 없지만 인도의 그것과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중국의 내용으로 번역하는 이론이다. “니구올타수(尼拘律陀樹, nyagrodha)’는 중국에는 없으나 버드나무와 약간 비슷하므로 ‘유수(柳樹)’라 번역”하였는데 의번에 해당한다.<sup>17)</sup> 현장은 구마라집과는 달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 직역을 택하였다. 직역과 의역의 선호는 대상에 따라 달랐다. 전문 영역을 추구하는 계층(승려 등)은 범어의 전문 지식을 전하는 현장의 번역을 선호하였고, 일반인들은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마라집의 의역을 더 선호하였다. 중국의 불

15) ‘박가범(薄伽梵, bhagavat)’은 ‘자재(自在), 치성(熾盛), 단엄(端嚴), 명칭(名稱), 길상(吉祥), 존귀(尊貴)’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미 구마라집이 ‘세존’으로 번역했는데, 자연히 현장 이후에 ‘박가범’과 ‘세존’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16) 『사분율초간정기』권2(X43,23b).

17) 『사분율초간정기』권2(X43,24b).

전 번역에 대한 인식은 ‘직역’과 ‘의역’의 선호도가 서로 대립하여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전의 문장에 충실할 것인가(직역), 그것의 메시지 전달에 충실할 것인가(의역)라는 고민은 동서 번역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이러한 불전의 번역 방식에 대한 고민은 서구의 성서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 2) 서구의 번역관

서구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로마 키케로(Cicero)로 소급된다. 그는 “아에키네스(Aechines)와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의 그리스어 담화”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방식은 “통역사가 아니라 연설가(*ut interpretes, sed ut orator*)”<sup>18)</sup>로서 수행했음을 밝혔다. 즉, “원문의 표현에 충실한 번역보다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번역”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의 견해는 서구 고전 번역론의 초석이 되었다. 직역과 의역에 대한 방향성이 언급된 것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그리스어역 구약성경 『칠십인역(Septuagint Bible)』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 제롬(St. Jerome)이다. 그는 로마 원로의원(AD 395년)에게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의 번역이 아니라 의미 대 의미(*sense for sense*)의 번역이었다”<sup>19)</sup>고 편지로 밝혔다. 고대는 “원전 텍스트의 단어에 상응하는 수용 텍스트의 단어를 단순히 써넣는” 행간번역(*Interlineary version*)으로 원시적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발전한 방법이 “문법을 고려하여 단어를 배열하는” 직역(축어역, *Literal Translation*)이 나왔다. 의역(*Free Translation*)은 직역에서 진보한 방식이다. 성 제롬(St. Jerome)은 원전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의역을 선택

18) “*nec converti ut interpretes, sed ut orator(=I did not as an interpreter, but as an orator)*” Cicero, Marcus Tullius(BCE46/1960), 347-373.

19) “For I myself not only admit but freely proclaim that in translating from the Greek I render sense for sense and not word for word, except in the case of the Holy Scriptures, where even the order of the words is a mystery.” St. Jerome(395 CE/1997), 25.

하였다.

번역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원문(ST)과 수용텍스트(TT)의 소통 과정은 두 언어의 발전을 담보한다. 독일은 현대 번역학의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로, 그 기반은 루터의 성서 번역이었다. 루터의 라틴어 성경의 자국어(독일어화)로의 번역은 자국어의 어휘와 문체에 발전을 가져와 현대 독일어의 문법 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루터는 독일인이 이해하기 쉽게 자국어법에 알맞게 옮기는 번역 태도를 취했는데,<sup>20)</sup> 그것은 결국 세련된 독일어의 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루터의 번역관은 괴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괴테는 의역과 직역을 번역의 2가지 원칙으로 설명하고, 주체의 이동 관점에 따라 이 둘을 나누고 있다.

- (1) “두 가지 번역의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낯선 민족의 저자를 우리에게 데려와 그를 우리 작가로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 낯선 저자에게로 건너가서 그의 상황과 그의 언어방식과 그의 고유성에 빠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sup>21)</sup>

(1)의 “이방인의 저자를 우리 작가로 둔갑시키는” 국어화된 의역에서도 핵심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에 있다. 의역에 대한 고민은 의미의 ‘등가성(Equivalence)’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sup>22)</sup> ‘등가성’의 개념은 야콥슨(Roman Jakobson, 1975)<sup>23)</sup>이 처음 도입하였는데, 그것을 재정립한

20) 루터의 번역 태도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였다. 그래서 「번역에 대한 공개서한(Sendbrief vom Dolmetschen)」(1530)에서 “집안의 아낙네, 골목의 어린애, 장터의 보통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의 입을 쳐다보고 나서 번역하여야만 한다.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신들과 독일어로 말하고 있음을 안다.”며 그의 번역관을 밝혔다. Goethe(1963), 21(강창구(2012), 190. 재인용).

21) Goethe(1963), 35(강창구(2012), 189. 재인용).

22) ‘등가성’에 대한 개념을 “홈즈(Holmes, 1994)는 ‘대응(matching)’으로, 체스터맨(Chesterman, 1996)은 ‘유사(similarity)’”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광성희(2009), 161.

사람은 나이다(Eugene Nida, 1964)이다. 나이다는 1940년대부터 계속 성서 번역을 수행한 번역자이자 번역학자였다. 그의 성서 번역은 단순한 글자 해석의 번역에서 벗어나 총체적 번역이 중요함을 번역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두 텍스트(ST와 TT)가 온전히 같을 수 없는 이유는 “메시지의 성격, 번역자의 의도, 독자층”이 번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번역자는 최근접한 의미를 확보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는 “번역자는 빚을 지는 사람이다. 갚을 때는 똑같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웨스트(Constance B. West, 1932: 344)의 문장을 인용하여 강조하였다.<sup>24)</sup> 웨스트의 ‘빚쟁이론’<sup>25)</sup>은 의미 등가에 대한 적절한 비유이다. 나이다(1964)는 이런 측면에서 “형식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로 직역과 의역에 해당하는 등가 개념을 구분하였다. 나이다의 평면적 대응 기준을 입체적으로 세분화한 사람은 콜러(Koller, 1979/1989)이다. “외연적(denotative) 등가, 내포적(connotative) 등가, 텍스트 규범적(text-normative) 등가, 화용론적(pragmatic) 등가, 형식적(formal) 등가” 5개의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이런 연장선에서 캣포트(Catford, 1965)는 “텍스트의 의미적 등가를 담아내는 행위”가 번역이라고 하였다. 그는 번역은 “어떤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 요소를 다른 언어의 등가 텍스트 요소로 교체하는 것”이라 하였다. 결국 직역과 의역의 선택에 앞서 번역의 가장 근원적 핵심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에 있는 것이다. 등가의 개념은 불전의 번역에도 늘 논쟁이 되었던 것으로, 동서를 초월한 보편적 문제 의식이자 번역 행위의 열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의 등가는 결국 시공의 간격을 극복하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23) 야콥슨(1957)은 “번역이란 한 언어의 메시지를 직역(단어 대 단어)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4) “Constance B. West(1932, p. 344) clearly states the problem: “Whoever takes upon himself to translate contracts a debt; to discharge it, he must pay not with the same money, but the same sum.”” Nida(1964/2003), 156.

25) ‘빚쟁이론’은 필자가 설정한 단어이다.

## 2.2. 국어의 번역사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전래된 것은 한문 불전이였다. 한문불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중역(重譯, retranslation) 이자 재번역에 해당한다. 불전의 번역 과정은 국어의 번역사이기도 하다. 국어의 불전 번역의 출발이 되는 기준 시기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통해 번역의 발전 개념과 체계를 현대역에 적용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우리말 번역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 글(정음)이 창제된 중세(15세기)부터이다. 하지만 우리글이 없던 때에도 “한자 차자표기”를 활용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입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말이 없던 시기의 그 빈자리는 한문이 담당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입말과 글말이 다른 이중언어 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왔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언어생활은 우리말 어휘의 조어법에도 영향을 미쳐 한자어의 분포가 그 세력을 넓혀갔다. 현재(2022년) “<표준국어대사전>의 전체 올림말(422,890)”의 대비에서 고유어 17.9%(75,520)에 비해 한자어 55.6%(235,173)로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sup>26)</sup>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한 층을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요소이다.

우리 글말이 없던 시기에 텍스트의 내용을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접근하기 쉬운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한자 차자표기의 개발이었다. 차자표기의 자료 중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구결이다. 구결 자료에는 석독구결과 음독(순독)구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문 문장을 읽을 때 각 구절 아래에 필요한 문법형태소를 적은 구결문은 음독(순독)구결과 석독구결이 있다. 우리

26) 예전의 경우는 한자어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외래어의 확장으로 분포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전체 올림말(422,890) 중에 어종별 비율을 보면, “고유어 17.9%(75,520), 한자어 55.6%(235,173), 외래어 5.6%(23,819), 혼종어 20.9%(88,378)”의 분포를 보인다(국립국어원(2022), 4. 참조).

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결 자료는 음독구결로, 한문 문장의 각 구결 아래에 필요한 토를 달아 한문의 문장 구조로 읽는 것이다. 석독구결은 한문 문장에 부호나 토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어순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보다 한 시기 늦은 조선시대의 음독구결은 조선 후기까지 역경 작업에 사용되었다.

국어 번역의 시대를 설정하는 데 있어 번역의 개념과 함께 차자표기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sup>27)</sup> 유명우(2002)는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의 배경과 번역자 중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한 핼(Pym, 1998)의 가설에 입각한 한국 번역의 시대 구분을 설정하였다.<sup>28)</sup> “한자 차자표기(이두, 향찰, 구결) 번역, 언문 번역, 한글 번역”의 3단계 시대 구분으로 그 기준은 표기의 명칭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반해 김정우(2008)에서는 표기와 번역의 영역이 다름을 지적하여 구결 중에서도 번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석독구결만이다. 차자표기는 ‘쓰기의 영역’이라면, 구결은 ‘독해(읽기)’에 해당하고, 특히 음독구결 자료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의 개념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안병희(1976)의 의견을 인용하여 “훈독은 한문의 원문을 읽는 것이고, 번역은 완전히 백지에 새로 쓰여진 번역문을 읽는 것”으로, 석독(훈독)구결은 번역 직전의 의사(擬似)번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설정한 김정우(2008)의 한국 번역의 시대 구분은 다른 논의에서와 달리 “번역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번역의 자료의 형식적이고 내용적 측면의 검토를 통한 적절한 기준을 도출하여”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김정우(2008)는 아콕슨의 “언어 내적 변화”의 기준에

27) 이 글의 내용과 연계되는 한국 번역학과 번역사의 연구로 유명우(2000, 2003, 2004), 김효중(2000, 2004), 박여성(2000), 김정우(2005a, 2005b, 2008), 조재룡(2009), 장경준(2011) 등을 들 수 있다.

28) 유명우(2002, 81-82)는 “성서의 번역에서 새로 번역에 사용된 언어(영어)가 문학과 표준영어로 성립하는 데 기여한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핼(1998)의 가설은 연구방법론에서 중요하다”고 평하였다.

따라 번역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문자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번역의 시대 구분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는 먼저 “번역의 선사 시대(11세기까지)와 번역의 역사 시대(11세기 이후)”로 구분하였다. 다음에 번역의 역사 시대에 “의사번역 시대(11-13세기, 석독구결)와 순정번역 시대(14세기 이후)”로 나누었다. 순정번역 시대는 다시 “이두번역 시대(14-15세기 중반)와 국문번역 시대(15세기 중반 이후)”로 나누고, 국문번역 시대에는 “정음번역 시대(15세기 중반-19세기 후반)와 한글번역 시대(19세기 후반 이후)”로 구분하였다. 그 번역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과 번역서를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고 있으나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김정우(2008)의 한국 번역사 연표”<sup>29)</sup>

- A. 번역의 선사 시대(Pre-Historic Age of Translation, 11세기까지)
- B. 번역의 역사 시대(Historic Age of Translation, 11세기 이후)
  - 1. 의사번역 시대(The Pseudo Translation Period, 11-13세기)
  - 2. 순정 번역 시대(The True Translation Period, 14세기 이후)
    - 2.1. 이두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Idu Stage, 14-15세기 중반)
    - 2.2. 국문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Korean Alphabet Stage, 15세기 중반 이후)
      - 2.2.1. 정음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Jeongeum Phase, 15세기중반-19세기 후반)
      - 2.2.2. 한글 번역 시대(The Translation-by-Hangeul Phase, 19세기 후반 이후)

본고에서는 위 (2) 김정우(2008)의 연표를 수용하되, 그의 이중 층위의 구성과는 달리 일직선 층위의 단면적 구도로 단순화된 시대 구분을 하기로 한다. 즉, ‘태동기(차차표기 작성기, 11세기까지), 출발기(석독구결 번

---

29) 김정우(2008), 63-65. 이 글에서는 각 번역 시대마다 예시로 든 번역서와 특징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고 번역의 시대별 명칭만 옮겨 왔음을 밝힌다.

역기, 11-13세기), 도약기(이두 번역기, 14-15세기), 발전기(정음 번역기, 15세기 중반-19세기 후반), 성숙기(한글 번역기, 19세기 후반 이후-현재)' 5단계의 번역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3) 한국 번역의 시대 구분

제1 태동기: 차자표기 작성기(11세기까지)

제2 출발기: 석독구결 번역기(11-13세기)

제3 도약기: 이두 번역기(14-15세기)<sup>30)</sup>

제4 발전기: 정음(언해) 번역기(15세기 중반-19세기 후반)

제5 성숙기: 한글 번역기(19세기 후반 이후-현재)

위 (3)의 시대 구분에서 불전의 현대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정음(언해) 번역기이다. 불전의 현대역을 위한 검토는 정음(언해) 번역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중세와 현대라는 시공의 거리는 존재하지만 정음(언해) 번역 어들을 현대 불전 번역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표현은 한자어 번역보다 오히려 정확하게 다가온다.<sup>31)</sup> 예를 들어, “직심(直心)”은 『능엄경언해』에서 “고든 므습(곧은 마음)”(44a)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이 말 그대로 “곧은 마음”으로 풀어쓰고 있다. ‘악취(惡趣)’는 문체에 따라 “구즌 길히(惡趣, 굿은 길)(석상<sup>32)</sup>, 11:8a), 머즌 길히니(惡趣, 흥한 길)(석상, 9:10b), 여러 모딘 길히라(諸惡趣, 여러 악한 길)(석상, 21:40a)”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원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인다. 음성번역한 어휘는 중국(도안, 현장)의 번역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

30) 조선의 이두번역 문헌으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1395),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1415), 『우마양저염역치료방(牛馬羊猪染疫治療方)』(1541)” 등이 있다.

31) 김정우(1990), 135에서도 언해본은 “한자화된 현대어보다 우수한 고어 번역어”가 많다고 밝혀 놓았다. 언해본에 번역된 고유어들은 대부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에, 현재의 번역에서 활용할 자료가 된다.

32) ‘석보상절’의 줄임말.

로 “시라(尸羅, 계)(석상, 9:13a), 니사단(尼師檀), 비니(毗尼)(석상, 23:34b), 찰제리(석상, 9:19b-20a)” 등이 있다.

우리말 번역의 출발 지점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재번역을 위한 점검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한문이 가진 역사성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언해본은 국가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말 불전 번역을 주관한 최초의 번역서이다. 그렇기에 근대기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번역의 요소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 불전의 번역 과정과 그것에 임하는 번역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근대의 시행착오와 현재의 번역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글 번역의 시작인 ‘정음 번역기(언해본 시기)’에서 추구한 불전의 번역 방식(의역과 직역)과 그 번역의 실행 과정을 재검토하여 현재 우리가 간과한 번역의 단계와 의미를 되새김질하고자 한다.

### 제3장 번역 과정의 검토

고려시대 석독구결 표기로 번역한 불전들이 있었지만<sup>33)</sup>,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말 불전 번역은 정음(한글) 창제 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우리말의 번역서는 ‘언해’로 통칭하는데, 그것은 한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번역서라는 뜻이다.<sup>34)</sup> 15세기에는 ‘언해(諺解)’보다

33) “『석교분기』(11세기), 『화엄경소』(12세기 중엽 혹은 그 직후), 『화엄경』(12세기 말-13세기 초), 『구역인왕경화』(13세기 중엽 이후), 『금강명경』(13세기 중엽 이전), 『유가사지론』(13세기 말엽) 등의 총 6종이다.” 백두현(2005), 14-15.(김정우 2008, 44. 재인용.)

34) 언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최현배(1982), 97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언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문 원전에 대한 언문 번역’이다. 따라서 다른 외국어 원전의 우리말 번역 문헌에는 ‘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말, 만주말, 몽고말에 관한 조선식 해석에 대하여는 결코 ‘언해’란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김정우(2008), 38. 재인용.

“역해(譯解, 번역+주해)가 일반적”이었고,<sup>35)</sup> 서명에 직접 ‘언해’가 명시된 것은 16세기 『소학언해(小學諺解)』(1588년)에서부터이다.<sup>36)</sup> 그러나 한문본과 언해본의 변별을 위해 이전의 문헌에까지 소급하여 ‘언해’라는 명칭을 붙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세 우리말의 번역서는 ‘언해’로 통칭되고 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후부터 세조대 언해서 번역의 중심이 된 텍스트는 한문 불전이였다. 유교를 국교로 세우기 위해 창건한 나라에서 불전이 초창기 언해본의 출발점을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왕권의 강력한 의지 때문임은 분명하나 그동안 축적된 불전 해석의 힘이 작용했음도 무시할 수 없다. 불전에 대한 해석은 우리글이 없던 시기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역(해석)에 대한 합의가 기저에 놓여 있었다.<sup>37)</sup> 반면에 조선 초기는 유경류(儒經類)에 대한 연구와 번역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전할 수 있는 텍스트의 선택이 새 글자의 홍보에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세조가 설치한 간경도감(1461년)이 성종 대에 폐지(1471) 되고, 이후 교정청(校正廳, 1585)을 설치하여 유경류의 언해에 주력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본의 일반적인 체제는 5가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문 텍스트를 원전으로 한다. 둘째, 원전의 문장(한문)이 제시되어 있다. 즉, 한문에 우리말(정음)의 구결이 달려 있다(“如是를 我聞ㅎ스오니”). 셋째, “○”를 표하고 언해문이 시작되고(“○ 이 곧호물 내 들즈오니”), 번역의 방식은 직역이다(『석보상절』처럼 원문이 제시되지

35) 정우영(2022), 145.

36) 김무봉(2010), 21-22.

37) 현대 국어의 전문어 영역에서도 역사의 세월만큼 불교의 어휘(전문어) 분포는 단연코 수치가 높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의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의 “종교 분야의 전문어 현황”에서, 종교 표제어(13,743) 가운데 “불교(10,040), 가톨릭(1,445), 기독교(1,269), 종교 일반(98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국어원(2022), 4.

않는 경우는 고유어로 상세히 풀어쓴 의역으로 번역되었다.). 넷째, 언해 문에 표기된 한자에는 주음(우리말의 한자어 음)이 달려 있다(如聲來링). 다섯째, 구결문이나 언해문의 문장에 협주가 있다(협주는 “【】”의 표 안에 문장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4) 언해본 체재의 예시

“如是를 我聞호스오니 一時에 佛이 在室羅筏城祇桓精舍호사”  
 “○ 이 곧호를 내 들즈오니 ㅎ ㅍ이 부테 室羅筏城 祇桓精舍에 겨사【精舍  
 는 精호 ㅎ더기 사는 지비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으니, 한때 부처  
 님께서 실라벌성 기원정사에 계셔【정사는 정한 행적(을 지닌 이가) 사  
 는 집이다.】)” (능엄1, 22b-23a)

간경도감의 번역서 유형은 대체로 직역이었으나, 한문의 원문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둔 의역을 선택하였다. 결국 중세 조선의 번역은 직역과 의역의 어느 한 방향에 치우졌다기보다는 수용 텍스트(TT)의 성격에 따라 의역과 직역의 방법론을 취사선택하였다. 직역과 의역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하나의 원전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된 두 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존재할 때” 적용할 수 있다.<sup>38)</sup> 조선의 번역 방식은 다양한 실험정신을 보여준다. 『법화경』과 『아미타경』의 번역은 각각 두 양식의 번역이 존재한다. 『석보상절』에는 두 경이 모두 의역으로 번역되어 있다.<sup>39)</sup> 『월인석보』(11-19, 1459)와 『법화경언해』(1463)에 있는 번역문은 모두 『법화경』을 직역한 것이고, 『월인석보』(7, 1459)와 『아미타경언해』(1464)에는 모두 『아미타경』을 직역하여 실고 있다. 불전은 아니지만 『소학』을 번역한 『번역소학』(1518)과 『소학언해』(1587)는 직역과 의역을 대비하는 대표적인 번역양식서이다. 『번역소학』은 의역이고,

38) 김정우(2008), 50-52.

39) 『아미타경』은 『석보상절』 권7에 번역되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 본이다. 『석보상절』 전체가 의역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의역된 번역문으로 분류된다.

『소학언해』는 직역이다. 조선에서 원전 텍스트를 번역할 때 맨 처음 시도한 양식은 의역이다. 이후 다시 “언해”라는 서명으로 직역되는 번역의 순서를 볼 수 있다.<sup>40)</sup> 보편적으로 직역 후에 의역의 순서를 밟는, 일반적인 순서와 어긋나는 지점이다. 이것은 한문이 지배한 우리의 이중언어 생활에서 비롯된 양상이다. 한문에 익숙한 독서 행위가 가져온 유리벽인 동시에 번역자의 메시지 전달력이 약했다는 반증이다.<sup>41)</sup>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1553)은 국어(정음)로 번역된 그림책으로, 교화의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효 윤리를 쉽게 전하기 위해 그 내용을 압축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의역에 해당한다. 대중 교화의 목적을 지닌 의역 번역서이다.

간경도감에서 진행된 번역(언해) 과정은 엄격한 단계를 거쳤는데, 그 절차는 송 역경원 구관제(九官制)에서 원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up>42)</sup> 송나라의 경우는 범어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이고, 간경도감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텍스트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는 중역의 과정이다. 구관제의 번역 절차는 다음의 9단계를 거친다.<sup>43)</sup>

40) 언해본의 직역과 의역의 성향에 대한 것은 최현배(1982), 101.에 날카롭게 기술되어 있다. “언해는 그 주안이 본글(原文)인 한문의 이해에 있지마는, 뒤집[번역]은 반드시 한문의 이해를 주안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내용의 포착만을 위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언해’가 붙여진 서명의 직역 번역본과 그렇지 않은 의역의 번역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해의 설명 방식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다.

41) “선조 때 교정청에서 간행된 『소학언해』의 범례와 발문을 보면 『소학언해』가 직역을 하게 된 동기가 나온다. 즉, 중종 때 간행된 『번역소학』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의역을 했으나 오히려 원문의 뜻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주석까지도 본문에 부연하여 번역하였으므로, 글이 산만해진 곳이 있어 나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학언해는 선조의 뜻에 따라 오로지 한문인 원문에 의거하여 ‘축자작해’, 곧 직역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곳에 협주를 달아서 원전의 뜻을 살리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안병희 1973, 77)” 김정우(2008), 51. 재인용.

42) 김영배(2013), 42-43.(정우영(2022), 157. 재인용.)

43) 정우영(2022), 158의 “<표3, 범어 경전의 한역 과정>”에 제시된 원전의 한문 문장들은 삭제하였다. 아울러 ‘단계’의 명칭 대신 이 글에서는 숫자로 바꾸어 재정리하였다.

- (5) ① “역주(譯主): 정면에 앉아 얼굴은 밖을 향해 원전인 범문을 읽는다.”  
 ② “증의(證義): 역주의 좌측에 앉아서 역주와 함께 범문을 평량(評量)한다.”  
 ③ “증문(證文): 역주의 우측에 앉아서 역주가 큰소리로 범문을 읽는 것을 듣고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④ “서자(書字): 범학승이 범문을 살펴듣고 중국문자로 쓰되, 범어 발음과 같게 한다(‘hrdaya<sup>44</sup>’를 처음에 ‘紇哩第野’로 음역하고, ‘sutram’을 ‘素怛…覽’으로 음역한다.)”  
 ⑤ “필수(筆受): 범음을 중국어로 번역한다(‘紇哩那野’를 다시 ‘心’으로 번역하고, ‘素怛…覽’을 ‘經’으로 번역한다.)”  
 ⑥ “철문(綴文): 문자의 순서를 돌려 구절의 의미를 만든다(필수가 ‘照見五蘊彼自性空見此’를 이제는 ‘照見五蘊皆空’이라 하고, 범음에서는 대체로 목적어+동사를 취하는데, 예를 들어 ‘念佛’을 ‘佛念’으로, ‘打鐘’을 ‘鐘打’로 한다.)”  
 ⑦ “참역(參譯): 두 나라의 문자를 참고하여 오류가 없도록 한다.”  
 ⑧ “간정(判定): 긴 문장을 간추려서 구절의 의미를 정한다(‘無無明一無明’으로 두 글자만 남긴다.)”  
 ⑨ “윤문(潤文): 여러 스님들 중에서 관리를 삼아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문장을 자세히 참고하면서 윤색하도록 한다.”

『능엄경언해』는 세조가 내린 지시로 번역된 간경도감의 최초 불전 번역(언해)본으로, 이후 불전 번역(언해본)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sup>45)</sup> 언해본의 간행 절차는 『능엄경언해』(어제발(御製跋)에 명시되어 있다.<sup>46)</sup> 번역 과정과 담당자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7)</sup>

44) 원문에는 “kraya”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hrdaya”로 고쳐 적었다. 아래 ⑤에서 ‘紇哩那野’라고 한 것을 ‘心’이라 했기에 그것의 범어 원어는 hrdaya가 타당하다는 김호성 교수의 지적이 있었음을 밝힌다.  
 45) “간경도감이 설치되기 5일 전에 세조가 『능엄경』을 번역할 것을 지시하여 만 5개월만에 간행되었다. 활자본은 오류가 많아 후대 목판본이 다시 조성되면서 그것이들이 교정되었다.” 김정우(1990), 126.  
 46) “① 上이 입겨출 드르샤 ② 慧覺尊者의 마그와시닐 ③ 貞嬪韓氏等이 唱準호야닐 ④ 工曹參判 臣韓繼禧 前尙州牧事 臣金守溫은 翻譯호고 ⑤ 議政府檢詳 臣朴槿

(6)	단계	번역 과정(역할)	담당자
	① 구결	한문 원문에 구결을 단다.	임금(세조)
	② 확인	구결이 달린 문장을 확인한다	혜각존자 신미 선버
	③ 창준	구결문이 달린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교정한다.	정빈한씨 등
	④ 번역	(정음으로) 번역한다	한계희·김수온
	⑤ 상고	번역된 문장을 서로 비교·고찰한다.	박건·윤필상·노사신·정효상
	⑥ 예정(例定)	예시를 정한다.	영순군 이부
	⑦ 현운(懸韻)	동국정운음으로 한자음을 쓴다.	조변안·조지
	⑧ 교정	번역된 내용을 바르게 고친다.	신미·사지(思智/斯智?)·학열·학조
	⑨ 낭독	임금이 확정된 번역문을 임금 앞에서 조두대가 소리 내어 읽는다.	조두대

한문 불전은 각 단계의 역할 분담이 주어진 절차를 거치는 번역 체계화를 이루고 있음을 위(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능엄경언해』 간행에 참여한 각 직책의 인원은 도제조(계양군, 윤사로, 황수신 3명)를 비롯하여, 제조 7명, 부제조 5명, 사 4명, 부사 2명, 판관 3명으로 총 24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sup>48)</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번역 현장’ 참여자는 16명(위(6)의 인원)이고, 도제조, 제조 등의 ‘번역 시스템’ 참여자는 8명이다. 중요한 건 번역 현장의 참여자들의 번역과정이 분업화되어 있는 점이다.

『능엄경언해』는 이후 다른 언해불전에 참여한 20명보다 인원수가 제일

護軍 臣尹弼商 世子文學 臣盧思愼 吏曹佐郎 臣鄭孝常은 相考 ⑥ 永順君 臣溥는 例一定 ⑦ 司贍寺尹 臣曹變安 監察 臣趙祉는 國韻 쓰고 ⑧ 慧覺尊者 信眉入選 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히은 後에 御覽 ⑨ 典言 曹氏豆大는 御前에 翻譯 넉소니라” 『능엄어제발(楞嚴御製跋)』(3b-4a(할자본); 4ab(목판본))

47) 정우영(2022), 155-156의 “<표 2> 한문 불교경전의 언해 과정”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업의 단계 명칭(구결, 확인, 창준....)’을 첨가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48) 김무봉(2010), 17. <표1, 간경도감 간행 언해불서 참여 인원> 참조.

많았다. 그것은 첫 작업이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반증이다.

## 제4장 재번역을 위한 제언

정음을 창제한 당시에 반짝거렸던 불전 번역의 열의는 근대로 오면서 시들해졌다. 반면에 새로 유입된 종교였던 기독교의 성서 번역은 한글화로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고 번역하는 한 시스템을 이루었다. 근대의 불전 번역은 내용 전달의 방법론에 대한 것보다는 한글로의 번역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그 번역사업이 현대에 모범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마치 근대를 건너뛴 채 오늘로 넘어온 불전의 현대역에 대한 고민은 너무 복잡다단하여 긴장을 동반한다. 앞으로 불교의 지평선을 넓히기 위한 번역을 통한 불교언어의 현대화 및 확장과 재번역을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번역 주체의 신뢰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번역 주체의 능력과 보장성을 필요로 한다. 번역의 텍스트의 원전에 대한 선택의 조건 즉, 범어본(혹은 티베트어)이나 한문본이냐는 조건보다 선행하는 것은 번역의 주체에 대한 신뢰의 확보이다. 도안의 ‘오실본삼불이’의 번역관에서도 언급되었던 번역가의 자질이 번역을 올바르게 완성하기 때문이다.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이동”이 아니라 “전혀 번역되지 않는 것조차 실행하기 때문에”<sup>49)</sup> 번역의 주체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구마라집의 예에서도 보듯이 번역가는 두 문화권의 문화능력을 가져 상호 행동해야 한다. 구마라집의 경우는 번역자가 갖추어야 할 이중문화능력(bicultural competence)이 작용되었다. 비테는 “최소한 두 개의 서로

49) 앙리 메쇼닉(1999), 436. “Traduire, même ce qui n’a encore jamais été traduit, c’est toujours déàretraduire.”(조재룡 외 2017, 86. 재인용.)

다른 문화 공동체가 상호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목적과 필요에 부합하도록 문화 및 상황적으로 적절하게 행위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능력<sup>50)</sup>인 이중문화능력을 갖추는 것이 번역사가 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였다.<sup>50)</sup>

불전의 특성상 그 번역에서 이중문화능력을 지닌 번역가는 아무래도 스님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용성 스님에서 운허 스님의 동국역경원 등 지금까지 현대국어로 번역한 많은 불전의 번역물이 나왔지만 특정 대표성을 띠는 주목받는 번역서는 미미하다.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관의 신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더라도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이다. 따라서 번역의 주체는 튼튼하고 편안한 집을 짓는 뛰어난 건축가로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 집(번역)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특성을 잘 알아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제공해주는 주체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뚜렷한 목표의 순수성을 지녀야 한다. 번역 목적의 출발점에 대한 점검이 선행해야 한다. 번역 목표의 출발점은 번역 행위에 절대적 방향을 제시한다. 종단이나 기관 수장의 정치적 성과로 진행되는 작업은 ‘독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독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압축된 정보와 언어의 미학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환희심을 생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번역은 단순한 의미의 전달만이 아닌 언어의 형식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찰스 시슨(Charles H. Sisson)은 의미와 형식을 함께 전달하는 게 번역가의 의무로 보았다. 그는 “저자의 의미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똑바로 전하는 것”이며, 아울러 읽기 쉬운 번역을 하려면 “저자의 진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운율과 톤을 찾아내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1)</sup>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50) Witte(1996), 73. ; 장애리(2011), 172. 재인용.

51) Charles H. Sisson(1993), 35-43. ; 박옥수(2009), 90. 재인용.

번역은 시간적 여유가 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정해진 기한에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우선을 둔다. 때문에 독자에 대한 배려는 간과될 수밖에 없다. 언해본의 번역 작업에서 보였던 엄격한 과정과 대치되는 점이기도 하다.

셋째, 번역의 현장 구성 인원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오역에 대한 점검자 및 국어화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번역자, 교정자, 출판사의 3고리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번역의 현장(내용)에 대한 점검(오역에 대한 점검)을 거쳐야 하고, 번역용어/번역문의 체계적인 국어화가 요구된다. 번역은 국어의 영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TT)은 국어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한다. 전문영역의 어휘에 대한 작업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용어의 일의성, 투명성과 명시성, 일관성, 간결성”이다. 전문용어의 정리에서도 “국어학적 기준과 용어학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불교언어의 현대화 번역은 반드시 국어학자의 최종적 합의가 필요하다. 간경도감의 언해 작업 수행에서도 체계적인 단계를 거쳤듯, 국어사전에서 전문영역의 언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친다.

- (7) “①[사전 편찬자] 영역별 전문용어 표제어 및 표제어 후보군 규모 결정 → ②[사전 편찬자] 영역별 전문가에게 표제어 후보 선정 및 기술 의뢰(거시 구조, 미시구조를 제시) → ③[영역별 전문가] 표제어 후보 선정 및 기술 → ④[사전 편찬자] 일반어 표제어 목록과 교차 검토 → ⑤[사전 편찬자] 타 영역 전문용어 표제어 목록과 교차 검토 → ⑥[사전 편찬자] ④⑤ 단계를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 선정 후 기술 내용 통합 → ⑦[사전 편찬자]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비어 있는 미시 구조 보완 → ⑧[사전 편찬자] 1차 교정 및 교열 → ⑨[영역별 전문가] 최종 검토 → ⑩[사전 편찬자] 2차 교정 및 교열”<sup>52)</sup>

52) 본고에서는 사전편찬의 순서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김한샘(2016), 205에 제시된 내용에 일련번호를 첨가하였다.

이처럼 불교언어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에서도 국어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김정우 교수처럼 국어학자의 전문성과 함께 번역학자 겸 번역가, 그리고 불교를 익힌 경우이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53)</sup> 구성 인원의 전문성에 대한 점검은 불전의 현대화 작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인자이다.

넷째, 기존 용어의 활용에 대한 재인식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현대어로의 번역이 무조건적인 한글화나 무리한 새 단어(신선한 말맛에 치우친 단어)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요소를 경계해야만 합리적이고 적절한 언어로 의미 전달에 이를 수 있다. 가급적이면 고유어로의 번역이 우선이나 의미축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재고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어휘의 번역에 있어서 ‘음상’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념어의 설정에 있어 용어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 발음하기 좋고 듣기 좋은 단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조계종단에서 사용하는 한글표준화한 <칠정례>의 경우,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를 “지극한 마음으로 …… 절하옵니다”로 풀이하였다. ‘지심(至心)’은 “지극한 마음으로”로 번역하였고, ‘귀명례(歸命禮)’는 ‘절하옵니다’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원어(ST)에 일대일 대응이 아닌 번역의 폭이 줄어든 축소의미를 지니게 된 대표적 사례이다. ‘귀명례(歸命禮)’를 일대일로 번역하면 “목숨 바쳐 귀의하며 예배드립니다”이고, 약간 유연미를 적용시키면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로 풀어쓸 수 있다. ‘절하옵니다’와 ‘귀명례(歸命禮)’는 의미의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동의 층위마저 달리 적용된다. 이런 현상은 한자와 우리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문’과 ‘한자어’가 다르듯이 우리말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용되어 있다. 한자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신라 지

53) 전문용어의 특징과 분석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김정우(2000, 2003, 2011a, 2011b, 2013) 등을 들 수 있고, 번역학에 대한 것으로 김정우(2005a 2005b, 2005c, 2008) 등이 있다.

증왕 4년(503)부터이니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신조어들의 확장을 생각하면 우리말에서 차지하는 한자어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요점은 그 한자어가 일상어로 전반적인 이해 가능한 것이고, 대체할 고유어의 빈자리가 존재한다면 그 단어를 사용함이 합리적이다.

## 제5장 맺음말

통시적 관점에서 국어 번역사의 시대 구분을 통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우리말 불전번역의 시작점을 확인하였다. 한글 번역의 역사적 흐름에서 번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살펴보고 초창기의 번역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현재와 향후 추구해야 할 번역 태도를 제시하였다.

### “한국 번역의 시대 구분”

제1 태동기: 차자표기 작성기(11세기까지)

제2 출발기: 석독구결 번역기(11-13세기)

제3 도약기: 이두 번역기(14-15세기)

제4 발전기: 정음(언해) 번역기(15세기 중반-19세기 후반)

제5 성숙기: 한글 번역기(19세기 후반 이후-현재)

동양(불전)과 서양(성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 사유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번역의 출발점인 직역과 의역의 방향성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최종 목표는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범어본 불전에 대한 번역 방법의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도안(道安, 314-385)의 『마하발라야바라밀경초서』에 제시된 문장의 직역에 관한 방법론으로, “오실본(五失本), 삼불역(三不易)” 원칙이다. 번역자의 판단에 따라 원전의 문장을 수정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 5가지의

측면(五失本)과 내용을 미숙하게 해석하여 바꾸지 말아야 할 3가지 측면(三不易)을 말한다. 다음으로, 현장의 음성번역[音譯]과 정의번역(正義翻譯)에 관한 번역론이다. 현장은 직역을 구마라집은 의역을 추구하였다. 중국의 불전 번역에 대한 인식은 ‘직역’과 ‘의역’의 선호도가 서로 대립하여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한문불전 번역은 엄밀한 관점에서 중역(重譯)이자 재번역에 해당한다. 번역의 과정에서는 열린 번역방식으로 수용 텍스트(TT)의 성격에 따라 의역과 직역의 방법론을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였다. 중세 언해본의 특이한 번역 양식은 한 시대 하나의(동일한) 텍스트에 직역과 의역이 공존하는 점이다.

불교언어의 현대화 및 확장과 재번역을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 주체의 신뢰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번역 주체의 능력과 보장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뚜렷한 목표의 순수성을 지녀야 한다. 번역 목적의 출발점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번역의 현장 구성 인원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오역에 대한 점검 및 국어화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번역은 국어의 영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교언어의 현대화 번역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국어학자의 최종적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 용어의 활용에 대한 재인식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현대어로의 번역이 무조건적인 한글화나 무리한 새 단어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요소를 경계해야만 합리적이고 적절한 언어로 의미 전달에 이를 수 있다. 어휘의 번역에 있어서 개념어를 조어할 때는 발음하기 좋은 ‘음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약어>

T : 대정신수대장경

X : 만신찬속장경

월인 : 월인석보

석상 : 석보상절

능엄 : 능엄경언해

『마하발라이바라밀경초서(摩訶鉢羅若波羅蜜經抄序)』, 『출삼장기집』 권8.(T55, 52b-c)

『사분율초간정기(四分律鈔簡正記)』 권2(X43,23b)

장창구(2012), 「문학 번역의 문제」, 『독어교육』 55,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국립국어원(2007), 『전문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태학사.

김무봉(2010), 「불경언해와 간경도감」, 『동아시아불교문화』 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震學出版協會), 『김윤경전집』 1(1985), 연세대학교 출판부 재수록.

김정우(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연구』 1-2, 한국번역학회.

김정우(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연구』 4-1, 한국번역학회.

김정우(2005a), 「한국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우리말학회.

김정우(2005b), 「한국번역사의 기술과 자료」, 『통번역교육연구』 3-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김정우(2005c),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한국번역학회.

김정우(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한국번역학회.

김정우(2011a),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언어적 특성」, 『번역학연구』 12-1, 한국번역학회.

- 김정우(2011b),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번역학연구』 53.
- 김정우(2011c),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 김정우(2013), 「국어의 특징과 번역상의 함의-시점과 사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한국통번역학회.
- 김종인(2009), 「20세기 초 한국불교개혁론에서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 『종교연구』 55집, 한국종교학회.
- 김한샘(2016),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불교’ 영역의 전문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5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김호성(2001), 「한문불전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범어 문법」, 『불교대학원논총』 7, 동국대학교.
- 김효중(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 『번역학』 창간호.
- 김효중(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사.
- 뤼칭呂澂, 각소 역(1992), 『중국불교학 강의』, 서울: 민족사.
- 박옥수(2009), 「1920년대, 1930년대 국내 번역 담론과 번역학 이론과의 연계성 고찰」, 『동서비교문화저널』 20,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 백용성(1928),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서」, 『조선글 화엄경』 12권, 경성: 삼장역회.
- 백용성(1991), 『백용성 대종사 전집』 6권, 대각사, 1991.
- 에피엔 라모프, 호진스님 역(2006), 『인도불교사』 2, 시공사.
- 왕티궈王鐵鈞(2006), 『中國佛典翻譯史稿』,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 유명우(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 『번역학연구』 3-1, 한국번역학회.
- 유명우(2003), 「한국의 번역학: 그 현황과 전망」, 『신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신영어영문학회.
- 유명우(2004),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 번역」, 『번역학연구』 5-2, 한국번역학회.
- 윤종갑(2016), 「동아시아의 근대불교와 불경의 번역과 출판」, 『동아시아불교문화』 28,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자오환趙歡(2015), 「近五年玄奘研究綜述(2008-2013)」, 『世界宗教文化』 148-1.
- 장경준(2011),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장애리(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정우영(2022), 「신미대사의 불교경전 언해 사업과 국어학적 의의」, 『부산외솔회지』 13, 부산외솔회.

조윤경(2019), 「현장의 불전 번역 원칙: 도안 및 구마라집의 번역과 비교하여」, 『불교와 사회』 11-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소.

조재룡 외(2017), 「재(再)-번역은 무엇인가」,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조재룡(2009), 「번역사를 바라보는 한 관점: 앙리 메쇼닉(H. Meschonnic)의 경우」, 『번역학연구』 10, 한국번역학회.

최현배(1940/1982),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타오레이陶磊(2016), 「佛經漢譯理論中的“正翻”和“義翻”」, 『華東師範大學學報』 48.

허시롱何錫蓉(2004), 『佛學與中國哲學的雙向構建』,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후나이마 도루船山徹, 이향철 역(2018),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Cicero, Marcus Tullius(BCE46/1960). “De optimo genere oratorum.” In *De inventione, De optimo genere oratorum, Topica*, trans. H.M. Hubbell, London: Heinemann. 347-373.

Catford, John.(1965/2000),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P.

De Beaugrande(1988), “Text and Process in Translation.” In: *Textlinguistik und Fachsprache* (R. Arntz, hg.), 413-432,

E. A. Nida,(1964a/2003),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Second impression. Leiden. Boston: Brill.

E. A. Nida, C. Russell Taber(1964b).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oston : Brill.

E. A. Nida(1984), *Signs, Sense, and Translation*, Cape Town: Bible Society.

R. Jakobson (1957),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232-9.

R. Jakobson(1975), *Pushkin and his sculptural myth*, The Hague : Mouton.

- Charles H. Sisson(1993). "On translating Dante." *The Divine Comedy*. Trans. Charles H. Sisson. Oxford: Oxford UP. 35-43.
- St. Jerome(395CE/1997), "The Best Kind of Translator: Letter to Pammachius", trans. Paul Carroll, in Douglas Robinson (ed.), *Western Translation Theory from Herodotus to Nietzsche*, Manchester.
- W. Koller(1979/1989), "Equivalence in Translation Theory", Chesterman, Andrew, ed.,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Oy Finn Lectura Ab.
- Witte, H.(1994), "Translation as a Mea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itte, H.(1996), *Constrastive culture learning in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bstract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and Retranslation of Buddhist Terminology

Kim, Yeongang(Ven. Hyosh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Buddhist vocabulary by suggesting the limits of real translation and the direction of translation for modern translation of Buddhist language. In translation, the role of the translator is important, but the social system connected to it is also very important. The best results are obtained when these two factors are in balance. Therefore, by examining the translation system of Gangyeongdogam, the first Buddhist text translation agency, we confirmed what we should aim for in real translation. As Chinese characters occupied the vacancy of our written language, the process of translating Buddhist scriptures is also the history of Korean translation. A new retranslation can be a solution through review of existing translations. Four things about its attitude were presented.

**Keywords** ● terminology, the Buddhist language of Buddhism, Re-translation, modernize, the history of translation

■ 논문투고일 : 2022. 12. 6 ■ 심사완료일 : 2022. 12. 14 ■ 게재확정일 : 2022. 12. 16